예수님의 비유

50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눅 16:1~13
찬송가 185장 (내 너를 위하여), 찬양 90장 (예수 닮기 원해)

오늘 배울 말씀

1.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압니다.
2. 주님의 것을 주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함을 압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 ) 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찜이뇨 네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눅 16:1~2)

말씀을 이해하기

누가복음 16장에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의 소유를 허비함으로 직분을 빼앗기게 될 청지기는 쫓겨난 후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자니 힘이 없고, 구걸을 하자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하던 청지기는 아직 청지기 직분에서 쫓겨나기 전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반감시켜 줌으로써 자신이 쫓겨난 후를 대비하였습니다. 이를 본 주인이 그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이는 청지기의 불의함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장래를 용의주도하게 준비하는 지혜를 칭찬한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이렇듯 자신의 장래를 준비하는데 대단히 지혜롭습니다. 하물며 영원을 준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더 지혜로워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예를 들어 젊음이나 재능, 시간, 물질, 생명 등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면 불의의 재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마땅히 그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청지기로서 주인의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불어 우리의 영원한 삶을 대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용할 때 가장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될까요?

공과말씀 정리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눅 16:9)

And I say to you, make friends for yourselves by unrighteous mammon, that when you fail, they may receive you into an everlasting home (Lk 16:9)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2.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불의하다고 표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1. 자신이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용돈에 대한 표를 작성하고, 띠 그래프로 나타내어 봅시다.

기간	나의 한 달 용돈	헌금(십일조 포함)	사용한 돈	남은 돈	비고
10월					
11월					

예시 (띠 그래프) – 총 100% (한 달 용돈)

헌금 (10%)	사용한 돈 (70%)	남은 돈 (20%)

10월

11월

2 이 세상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나의 생각들을 적어보고 함께 교제해 봅시다.

3 왜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하였습니까? 이 청지기에게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요?

4 예수님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셨는지 적어봅시다(마 6:20, 요 15:13, 살전 2:19~20).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마 6:24	
월	눅 16:9	
화	요 17:19	

수

딤전 6:10

목

히 13:5

금

약 4:4

토

요일 2:15

용돈을 사용하는 두가지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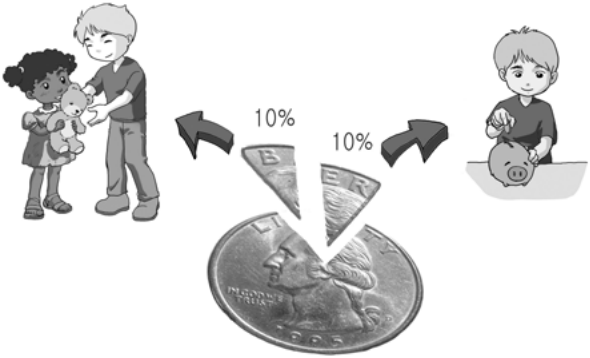
맨하탄 은행의 총재였으며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데이비드 록펠러는 자신이 어렸을 때에 돈과 관련하여 받은 훈련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1주일에 25센트씩을 주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50원 정도인데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아마 5000원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그의 아버지는 토요일마다 금전출납부를 조사하여 만약 수입과 지출이 엉터리이고, 돈을 쓴 명목이 나쁘면 5센트를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돈을 잘 사용했다면 5센트를 보너스로 줍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용돈이 30센트도 되었다가 20센트도 되었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돈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 첫째로 10%는 예금해라. 그리고 다른 10%는 따로 떼어서 반드시 자선 사업을 해라." 그는 어렸을 때부터 받은 그러한 훈련이 훗날 부자가 되었을 때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딤전 6:17)



질문 있어요~

이른바 '지식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지식 구원'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으나 구원 받은 사람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 구원 받았는지가 의심스러울 때 이를 '지식 구원'이라고 지칭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한 지식은 확실한 믿음과 직결됩니다. 비록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확실히 모르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구원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같은 말로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일 4:16)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엡 4:13)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딤전 2:4)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 17:3)

그러므로 구원에 대해서 말은 하는데 그의 행함 속에서 구원 받은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이 사실인지, 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 확실히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말씀을 듣도록 유도해 주어야 합니다. 남의 구원을 함부로 판단하여 말하지 말고, 본인이 느끼도록 지혜롭게 유도해 주면서 교제와 말씀 가운데 있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